지역 소식통

김제시, 7월 말까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7월말까지 6개월동안 관내 독거노인 70세대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제시는 관내 65세 이상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읍면동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주거의 노후화·경제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했고, 집수리 관련 타사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5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하는 등 복지지원에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연중 금연클리닉 운영

김제시 보건소(소장 송윤주)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중 금연클리닉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으로 금연을 포기하게 되고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유지를 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리고 흡연은 폐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에 대한 대응을 방해하고, 흡연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도 및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금연 희망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전화 등록 또는 방문 등록을 하고 금연상담을 통해 니코틴보조제, 캔디, 아로마 파이프와 같은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금연 시도 대상자를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대상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 삼례도서관 내달부터 '북크닉' 운영

완주군 삼례도서관이 봄날을 맞아 책과 함께하는 북크닉을 운영한다.

북크닉은 책(book)과 피크닉(picnic)의 합성어로 책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홍보하고자 삼례도서관에서 준비했다.

22일 삼례도서관은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도서와 함께 피크닉을 갈 수 있도록 북꾸러미를 대여해 준다.

북꾸러미는 유아용과 취학 아이들용으로 구성됐다.

유아용에는 유아용도서 2권, 성인도서 1권, 스티커북, 돗자리가 취학 아이들용에는 그림책 2권, 청소년도서 1권, 성인도서 1권, 보드게임, 돗자리로 꾸려졌다.

선착순 10가족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당 최대 2번까지 신청 가능하고 도서관 회원증이나 회원증 없을 경우 신분증 제출 후 대여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그 주 토요일에 수령가능하다.

당일반납을 원칙으로 오후 5시안까지 반납해야 되며 삼례도서관 도서와 보드게임만 반납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인민원 발급창구 시대 개막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지문 인식으로 증명서 발급
올 상반기 화산면·구이면등 2곳에 추가 설치 예정

완주군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서비스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에 지문 인식으로 손쉽게 여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 각종 증명서의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지난 2019년에 6만520여 건에서 지난해 6만8,130여 건으로 12.6%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對)주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화산면과 구이면에 각각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화산면 무인민원 발급기는 다음 달 안에 행정복지센터 입구 옥외부스에 설치되며, 구이면 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건물 안에 설치 돼 민원인의 상시 접근성과 편리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설치를 위해 이달 안에 계약의뢰하고 업체를 선정한 후 다음 달 중순 안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2곳에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설치될 경우 지역 내 전체 무인민원발급기는 종전의 10대에서 12대로 늘어나게 된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총 16개 분야에 83종의 증명서로, 주민등록과 지적·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병무, 지방세, 어선원부, 부동산등기사항, 국세증명, 교육증명,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의 증명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발급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발급 서류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유준옥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2년 사이에 무인민원 발급 건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추가 설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창구는 현재 군청과 삼례, 소양, 고산, 운주 등지에 각각 1대가, 봉동과 이서 등에는 각각 2대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장소와 운영시간, 발급 가능한 증명 종류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는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2022년도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보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보호

김제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보조사업 추진
재정 열악해 신청 못하는 곳에 자부담 10%로 조정

김제시는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2022년도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보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제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범죄에 무방비하고 잇따른 강력사건 발생으로부터 자체 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치매 노인 실종사고 예방, 아동·청소년 안전한 귀갓길 보호, 농작물 절도 및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설치될 계획이다.

2022년 사업 대상마을은 CCTV 4대 기본설치 만경 신덕마을 외 13개 마을과 CCTV 2대 소규모 설치 1개 마을로 총 14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 사업 시작 이후 보조사업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미설치 마을이 우선 선정되었다.

사업비는 CCTV 4대 설치에 총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시 보조금 450만 원과 마을 자부담이 50만 원이며, 소규모 CCTV 2대 설치는 총사업비 300만 원으로 시 보조금 270만 원과 마을 자부담 30만 원으로 구성된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진출입로에 주·야간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설치와 마을회관에 녹화기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관리책임자(마을 이장)를 선정해 안전하게 영상정보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 CCTV는 기후 악조건에서도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4시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방범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채택하고 있으며, 도로의 연계성, 권역별 방범효과 등을 고려 최적의 위치 선정이 중요해 민·관·경이 합동으로 CCTV 위치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 재정이 열악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마을에 방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일부 조정하고, 기존 CCTV 4대 기본설치에서 소규모 CCTV 2대 설치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마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지형 특성에 따른 사업 참여 선택폭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허정구 정보통신과장은 "농촌 마을의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24시간 안정적인 방범망 가동을 위해 수리수선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작년 하반기 김제 고용률 전년보다 1.5%p ↑

사회적 취약층 공공일자리
투자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용률 상승 견인

김제시(시장 박준배)의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2월)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김제시 고용률은 64.5%로 2018년 대비 4.8%, 2019년 대비 2.9% , 2020년 대비 1.5% 상승으로 민선7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59.6%, 전북 평균 59.3%를 상회하고 있다. 총 취업자 수는 4만4,800명으로 전년대비 500명 증가하였다.

특히 50~64세 고용률이 81.4%로 전년 78.4% 대비 3% 가량 상승하였으며, 65세 이상 고용률 역시 52%로 전년 48%에서 4%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시대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일자리로는 청년창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 취약층 공공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 생활방역일자리사업 과 지평선산단 분양률 95.5%인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또한 김제시가 2020년 4월 전국 1위로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5년 300억)으로 고용안정일자리센터를 구축, 실업·실직자들에게 구직서비스를 제공 및 취업상담을 통해 3,000여명을 취업으로 연계해 고용률을 높여왔다.

한편 김제시는 민선7기 일자리 3천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 일자리 및 민간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665개를 창출해 목표대비 228%를 초과달성했으며 올해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신중년일자리, 마을환경지킴이 등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고용지표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중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선7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청년일자리 및 기업유치등을 통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31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완주군이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22일 완주군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맞춰 실시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감지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대상 업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단속된 가맹점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완주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추경 1조30억원 편성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추가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 건 등을 처리한 이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24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예산안을 총괄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해 기정액 9,404억원보다 626억원 증가한 1조 3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김복남,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의원(선거구 순)이 선임됐다.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시의 각종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기반 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자 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정호영 전 도의회 부의장, 김제시장 예비후보 등록

정치입문이래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꾸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당을 지켜온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호영 전부의장은 김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근본원인이양질의 일자리 부족·교육과 문화의 빈곤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과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불평등·양극화·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정호영이 가진 미래성장전략으로 고질적인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호영 전부의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군경묘지 충혼탑과 시민운동장내 이세종·조성만 열사탑을 참배하고, 긴 안목으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7개 분야 42개 세부실천항목으로 구성된 공약집을 토대로, 인구감소시대를 종식하고 포효하는 김제, 김제성장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제=곽노태기자

RAT 양성시 확진자 분류 치료

완주군은 코로나19 환자관리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반응 시 확진자와 동일한 격리·치료에 나서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RAT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감염병 의사환자로 인정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한 치료에 나선다.

군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지역 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24개소와 협력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관리의 공백을 막고 위중증 방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친환경 레이온100% 원단 사용 물티슈

김제장애인보호작업장 '해내리 Pure' 신제품 생산

김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3월부터 해내리 신제품인 친환경 레이온100% 원단을 사용한 물티슈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환경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세계적인 지구의 환경보호 이슈와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친환경 물티슈를 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내리 Pure(순수) 신제품은 8단계 정수 과정을 통해 무자극, 향균 테스트를 마쳤으며, 엠보원단으로 수분흡수가 뛰어나 사용감이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자연에서 생분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해 제조동 330㎡(100평) 증축을 통해 독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많은 주문량을 무리없이 처리해냈고, 제품을 다해낸다는 해내리의 의지대로 근로장애인 30명이 해내리 물티슈 6종(1매, 10매, 20매, 30매, 72매, 80매)을 생산하는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친환경 물티슈 생산으로 2022년 재도약에 도전중이다.

보호작업장 유호열 원장은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물티슈 생산으로 지금까지 위생적이고 질 좋은 해내리 물티슈 이미지와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물티슈로 해내리의 입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해내리 물티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다. 주문 및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543-2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기자